

24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96.96	↑ 코스닥	813.33
	(-215.99)		(+11.39)
↓ 금리 (미국 9년)	3.836	↓ 환율 (원-달러)	1383.60
	(-0.018)		(-2.90)

“AI 인재 모셔라” SK·현대·삼성 등 채용 키워드 ‘실행력’

주요기업 하반기 채용 스타트

SK하이닉스, 학력 제한 전면폐지
26일까지 서류 접수, 내년 1월 입사
현대차, SDV·AI 인재확보 핵심
내달 6개 부문서 92개 공고 예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 하반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는 물론 제조·철강·유통·식품 등 산업 전반에서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신입과 경력으로 나눠 선발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AI 인재 채용 포문을 연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신입 수시채용부터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성장 가능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반기 채용에서는 설계·소자·R&D·공정·양산기술 등 반도체 핵심 직무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AI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반나절 심층면접’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 서류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입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9월 1~14일 연구개발·디자인·생산·제조·사업·기획·경영지원·IT 등 6개 부문에서 92개 공고를 내고 대규모 신입 채용에 나선다. SDV와 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분야 인재 확보가 핵심이다. 현직자와 소통하는 커리어 라운지를 열고 우수 참여자에게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채용 마케팅’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정기 공채 채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입 3급 공채를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진행하며, 9월 채용이 대표적인 하반기 공채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쯤 하반기 공채 일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정기 공채 채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입 3급 공채를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진행하며, 9월 채용이 대표적인 하반기 공채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쯤 하반기 공채 일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LG그룹은 계열사별 직무 중심 채용과 수시 경력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LG전자는 AI 엔지니어를 경력으로 영입하면서 LLM·RAG·AI 에이전트·데이터 파이프라인 등 실제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입 역시 단순 전공보다 프로젝트와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 LG전자는 로봇·소프트웨어 등 R&D 분야 중심으로 하반기 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철강 등 전통 제조업에서는 제조AI 자체가 별도 채용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AI 전문인력 채용에서



내년도 수능 원서접수 스타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L7면) /뉴스

‘사무 DX’와 ‘제조 AI’를 구분해 선발했으며 AI·데이터 분석 역량과 함께 포트폴리오 제출과 AI 활용평가와 면접을 진행했다. 신입과 경력을 직무별로 구분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비트코인 일주일새 22% ↑… 다시 ‘불장’

美 ‘바이백’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트럼프, 클래리티법 촉구 등 기대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도 급상승세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제 바이백(만기 이전 재매입)으로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親) 가상자산 법안으로 꼽히는 ‘클래리티법’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정책적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24일 가상자산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7만7239.60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0.24%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 22일 이후 3일 연속으로 7만7000달러를 넘겨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의 주간 상승폭은 22.03%에 달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빠르게 올랐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동안 28.63% 상승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15.59% 올랐다. 시총 4위 리플(XRP)은 일주일 간 47.38% 급등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美 ‘바이백’에 유동성 공급

이달 초까지 부진을 지속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은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제 바이백의 영향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

간) 향후 3개월간 미 국제 바이백 규모를 기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늘리고, 필요 시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 국제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적극적인 재매입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바이백 조치 이후 시장에는 대규모의 유동성이 풀려났으며, 위험자산에 선호 심리도 회복됐다. 자금이 장기간 저평가됐던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자 가격이 상승했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도 일부 청산돼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추겼다.

◆‘클래리티법’ 기대감 재점화

친 가상자산법으로 평가받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과정을 규율하고 가상자산을 ‘상품성 자산’과 ‘증권성 자산’으로 분류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증권성 가상자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성 가상자산은 미 상품거래위원회(SFTC)가 관할하게 된다.

‘중복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XR P를 발행하는 리플(Ripple)은 XRP가 ‘상품성 자산’으로 분류되에도 일부 계약 형태의 증권성 논란을 이유로 SEC와 4년 간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성과급 60% 주식으로’… 찬반 투표 시작

SK하이닉스, PS 지급방식 ‘쟁점’
40% 현금, 60% 자사주 지급 내용
업계 주식연계 보상의 기준점 될 듯

SK하이닉스가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성과급 제도의 지급방식을 1년도 안 돼 손질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사가 현금 중심의 초과이익분배금(PS)에 자사주 지급을 확대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와 함께 반도체업계의 주식 연계 보상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25일 오전까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쟁점은 PS 지급방식이다. 노사는 지난해 PS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이번 잠정합의안은 자원 기준을 유지하면서 PS의 40%는 현금,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주식 수는 경영성과 발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스

급일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산정하며 주식 가치가 약화된 성과급보다 낮으면 차액도 보전한다.

성과급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PS 재원이 연간 영업이익의 10%로 정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98조152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PS 규모는 연간 실적이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문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지급방식이 달라지면서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 사이에서는 기존 합의를 다시 손질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노조가 주식 지급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과 주식을 연계하는 움직임은 삼성전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보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이나 개인 성과와 연계하는 방식이어서 전 직원 PS를 주식과 결합하는 SK하이닉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표결은 국내 반도체업계의 주식 연계 보상 확대 흐름을 가늠할 사례로 주목된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전 직원 성과급 지급에 주식을 확대 적용할 경우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 모두 주식 연계 보상을 강화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내부 관계자는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성과급 지급방식을 1년도 안 돼 바꾸는 데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며 “주식 지급안을 노조가 받아들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 느껴…공정한 실종수사에 모든 노력” /사진 뉴시스
▲홍익표,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대통령 임명권 일부 침해…관행과 동떨어져”

▲조국 “노웅래 녹취 같이 듣자고?…한동훈 휴대전화도 같이 보자”
▲이준석 “이제 국민은 계엄 이유로 참아주지 않아…野 의견 들어야”

▲이진숙, 김민석 ‘모욕’ 고소…“여자 히틀러 표현, 정치적 비판 넘어선 악의적 공격”
▲강훈식, 野 특활비 내역 제출 요구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워”